

## 거대한 돌덩이에 붙여넣은 인간의 감정...론디노네 개인전

2015/09/01 15:46

스톤헨지 연상시키는 청석 조각 국제갤러리서 선보여  
"가장 원초적인 상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높은 천장을 통해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흰색 벽면의 갤러리 안에 사람 형상의 거대한 돌 조각 5개가 놓여 있다.

높이 3-4m에 무게가 2.5t 내외에 달하는 이 작품들은 영국에 있는 고대 거석 유적 '스톤헨지'를 연상시킨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스위스 출신의 작가 우고 론디노네가 종로구 국제갤러리 K3관에서 개인전을 통해 청석 조각 연작을 선보인다.

2년 반 동안 청석 조각 작업을 해 온 그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석 조각은 미완성 상태라 할 수 있는 스톤헨지를 완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조각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 록펠러 광장에서의 전시 제의를 받고 가장 도시적인 장소에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각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청석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보인 89개의 작품은 모두 뉴욕 근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청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딱딱하고 무생물적인 매체에 인간적 감정을 불어넣어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에 감정(feeling)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론디노네는 자연에서 가져온 청석을 자르고 깎아 쌓아놓는 방식으로 인간의 형상과 감정을 표현한다. 머리, 몸통, 다리를 표현하는 각각의 돌덩이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철근으로 지탱된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돌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내 작업의 목표"라며 "머리에 놓인 돌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처음 발견했던 형태 그대로 얹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조각 작품 5개의 제목은 '참견쟁이', '변태', '관찰자', '호기심쟁이', '순종자' 등으로 의역된다.

그는 이 조각들에는 "앞뒤가 없고 성별도 없으며 감정이라는 개념으로만 인간과 연결된다"며 '수동성'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작품의 특징을 설명했다.

"수동성은 결말을 열린 상태로 두지만, 능동성은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것이 제 작업의 원칙입니다. 관람객 각자가 가진 감성을 작품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동성을 제 작업의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일반적인 전시회와 달리 관람객이 직접 작품을 손으로 만지면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 록펠러 광장에 전시된 론디노네의 조각 <<국제갤러리 제공>>

내달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청석 조각 연작과 함께 나무를 형상화한 조각도 선보인다.

K3관 뒤편 야외 공간에 전시된 이 작품은 2천년된 올리브 나무를 알루미늄으로 주조해 2천년의 시간을 집약해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1 15:46 송고

---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1/0200000000AKR20150901159400005.HTML?input=1195m>